

드라마 vs 예능, 상반된 TTA 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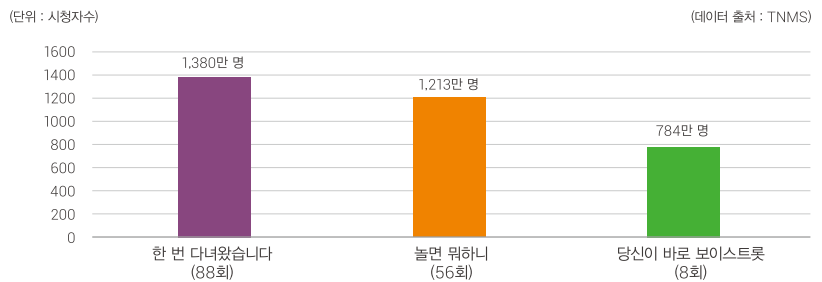


민경숙 | TNMS 대표
매스커뮤니케이션 박사
min.gs@tnms.tv

본방 + 재방송 + VOD를 모두 합한 TTA(TV Total Audience, 통합시청자 수 데이터)에서 드라마와 예능이 비슷한 규모의 시청자 수를 확보하더라도 드라마와 예능이라는 서로 다른 특색으로 인해 데이터 구성 트렌드가 다른 양식을 보인다.

KBS2 주말드라마 ‘한 번 다녀왔습니다’(88회)는 TTA에서 1,380만명의 시청자들이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고 MBC 예능 ‘놀면 뭐하니’(56회)는 1,213만명이 즐긴 것으로 집계됐다. 두 프로그램 모두 본방송 후 일주일간 1,000만명 이상 시청자를 확보한 인기가 높은 프로그램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.

〈표 1〉 본방송 + 재방송 + VOD



하지만 TTA데이터 내부를 분석해 보면 주말 드라마 ‘한 번 다녀왔습니다’(88회)는 본방송 시청자 수가 압도적인 반면에 예능 ‘놀면 뭐하니’(56회)는 재방송 시청자 수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. VOD 시청자 수도 드라마 ‘한 번 다녀왔습니다’(88회) 3만명 보다 17만명이 더 많다.

이러한 경향은 단지 지상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

아니라 MBN ‘당신이 바로 보이스트롯’(8회)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. ‘당신이 바로 보이스트롯’(8회)도 ‘놀면 뭐하니’(56회)처럼 본방송 보다 재방송 시청자 수가 훨씬 많다는 유사점을 보였다. VOD 시청자 수 비율도 ‘놀면 뭐하니’(56회)처럼 높아 본방송 시청률 1위 ‘한 번 다녀왔습니다’(88회) VOD 시청자 수 보다 4만명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. **KAA**

〈표 2〉 TTA 데이터 분석

